

# 황금 들녘에서 농부가 되다!

### 곡성삼기초, 로컬푸드 체험학습 실시



지난 10월 21일 곡성 삼기초등학교(교장 신동욱) 유치원, 전교생 학생들은 곡성읍 '미실관'으로 로컬푸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과 이용를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음식민들기 체험으로 나눔, 감사, 배려와 농업에 감사하신 분들에 감사하

는 마음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비베기와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로컬푸드 체험학습은 곡성읍에 있는 '미실관'에서 쌀생선의 중요성과 비 재배과정과 낫을 사용하여 수확하고 탈곡하는 실례를 들었다.

학생들은 바지를 걷고 논으로 들어가 밭가락 사이로 진흙의 촉감을 느끼면서 비베기

체험을 했다. 흙 속에 빠진 밭이 잘 들어지지 않아 걷기도 힘들었지만 비베기를 하면서 농부들의 힘들음을 체험하고 교수들과 서로 도와가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생활에 풍요이의 풍습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다.

쇠로 만든저인 살 사이로 벼를 끼워 담기면 벼줄기가 나오는 재래식 탈곡 농기구 '올테'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탈곡기를 발로 밟으면서 비이삭을 털어내며 탈곡할 때 떨어지는 낱알을 보면서 호기심으로 관찰하면서 탈곡기의 변천과정을 알아가며 즐겁게 참여했다.

벼수확 활동으로 팥 찰고리 난 후 쌀 강정을 만들어서 시키하면서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4학년 한자원 학생은 "그동안 벼의 한살이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 여러 가지를 알게 되어 정말 좋았고, 논에 들어가 벼를 벨 때 배는 촉감이 부드러워 좋았고 처음에 낫으로 벼를 베는게 무섭긴 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고 했다.

로컬푸드 체험학습은 지역 농산물 수확의 어려운 과정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농산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 습관을 배워가는 시간이 됐다.

김신영 기자 ksw@



## 웃어른 공경하는 마음 가진 꿈나무들

### 순천연향초 '노인정을 찾아가는 효 실천 봉사단' 활동

순천연향초등학교(교장 조흥현)는 순천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5, 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효 실천 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향초등학교는 인성·지성·사회성으로 '꿈·당당한 3·6·5 연향 DREAM'을 기반으로 3심에 해당하는 효심, 향심, 독심을 배양하여 잘자 웃어른을 공경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애함심을 가진 소중인 인재로 키우고자 하였다.

하여 5,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효 실천 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10월 27일 오전 11시에 6학년 전체 학생들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금호아파트 노인정과 부영 1차 아파트 노인정, 부영 2차 아파트 노인정 등 3곳에 나누어 '찾아가는 효 실천 봉사단' 활동을 실시했다.

1학기에겐 할아버지, 할머니께 기쁨을 나눠준다는 주제로 리코더 연주와 리듬합주, 노래와 댄스 등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여 기쁨을 선사했다면 이번 2회 때는 첫 만남의 인연을 바탕으로 다과를 함께하며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함의 소중함을 키우고자 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서 좋아하는 떡과 과일, 옛날 과자와 건강

요리를 준비하고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어 음식을 준비하며 상을 차려 웃어른을 대접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교감과 정담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효도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도넛과 구수구수 찹쌀도 하면서 노인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몸으로 실천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오는 자리에 할머니께서 "항상 나이든 사람만 있는 곳에 손주 같은 아이들이 찾아와 즐겁게 해주니 정말 고맙소!" 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찾아가는 효 실천 봉사단을 마친 6학년 학생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나면 혼자서라도 종종 노인정을 방문하고 싶을 나다"라고 활동 소감을 말했다.

조흥현 교장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효 실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웃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기르고 지역 사회 봉사에도 적극 힘쓰는 멋진 연향꿈나무로 성장하고 있어서 정말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열 기자 cjr@



## '전통 춤, 가락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시간'

### 여수여중, '송승현의 오리지널 난타 공연' 관람

전남 여수여자중학교(교장 정태연)는 10월 27일 음악과 교과연계체험활동으로 예음 마루극장에서 MBC가 주최하는 송승현의 오리지널 난타 공연을 관람했다.

난타는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이다.

갈과 도미 등의 주방 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되어 만들어내는 화려한 연주와 한국 전통 춤과 가락이 어우러지고, 가슴이 뵈 뿔릴 만큼 시원한 드럼 연주 등으로 구성되어 난타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1학년 김민주 학생은 "몸이 저절로 들뜨이게 만드는 신나는 리듬감, 한바탕 신명나게 노는 사물놀이 체험과 이런 공연관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3학년 김혜숙 학생은 "난타 공연은 처음 보는데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좋았고, 진짜 요리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배우들의 칼 다루는 솜씨, 춤, 노래 실력도 너무 훌륭했고 감탄이 절로 나와 행복했다"고 말했다.

일본정 교육복지부장은 "이번 공연관람은 교과서에서 벗어난 현장감 있는 교과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교과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준열 기자 cjr@

## 완도노화복지초, 원어민과 함께 할로윈 파티 실시

전남 완도군 노화복지초등학교(교장 최양욱)는 10월 28일 원어민과 함께하는 할로윈 파티를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영여권의 문화를 알찬 체험으로 느끼고, 즐겁게 영어표현을 익히고자 기획된 이번 할로윈 파티는 금요일마다 영어문화교육을 맡고 있는 Mathew선생님과 함께 했다.

2000년 전 세계가 11월 1일이었던 영국에서 세계 전역으로 실시했던 할로윈의 유래와 죽은 자들을 위한 축제의 날이기에 귀신 분장을 한다는 것 등의 새로운 사실을 원어민 선생님의 설명으로 이해하고, "Skeleton dance" 영사보기, 할로의 필름 만들기, "trick or treat" 포 사탕받기 등의 체험활동이 이뤄졌다.

할로윈 파티에 참가한 6학년 김병현 학생은 "저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그 무서운 날인 줄 알았는데, 축제는 것을 알게 되니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저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노화복지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영어감성을 더해주기 위해 할로윈과 더불어 크리스마스 파티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영 기자 kjr@

**(유) 하나로합정**

지역 (학부모회) / 건물 관리 / 자수료 협조

학생관리위원회 (운영/업무협조)

TEL : 061)324-5222 / H.P : 010-8888-2678

전남 합평군 합평읍 영수길 198-1번지

FAX : 061)323-0036

E-mail : hsb3222@hanmail.net

**대 동 방 역**

방역 / 살균 / 살충

TEL : 061)324-2931 / H.P : 010-8514-8006

**영업종목**

**간이상수도청소** : 마을 단위 소규모 급수 시설, 학교, 군부대, 도시 지역, 편선 등

**공간소독**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장내부 작업 환경 등

**무인자동살균**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 식음 예방

방역, 살균, 살충은 하나로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